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 개최

- 환경·법률·AI 등 각계 전문가 10명 신규 위촉, 총 14명 체제로 확대 -
- AI 전문가 자문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감사 업무 추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상임감사 정혜선, 이하 “공단”)은 7월 23일(목)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감사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 일시·장소: 7.23.(목) 10:30,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 ❖ 참석: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감사실장 등
(감사자문위원) 고려대 이양복 교수 등 14명

공단은 감사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안전·보건·환경·법률·행정·AI 등 6개 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촉해 기존 위원 4명과 함께 총 14명 체제로 확대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1차 자문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 및 감사원 등 대외 평가 결과 분석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공단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대외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감사운영방향에 대한 개선방안과 자문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감사활동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가능해져, 향후 공단 감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와 대외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선 상임감사는 “이번 신규위원 위촉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감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특히 AI분야 전문가를 통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감사업무의 수준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과학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감사실 성과감사부	책임자	부 장	양수빈	(052-703-0791)
		담당자	과 장	윤수희	(052-703-0793)

